구수한 냄새 솔솔…우리동네 장 가르는 날

종로노인복지관, 장독 분양사업 '장 가르는 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5층 장마당이 쿰쿰하면서도 구수한 메주 냄새로 가득 찼다. 빨간색 앞치마를 두른 어르신과 지역 구민, 전통문화 체험에 나선 어린이들은 복지관장 정관 스님의 진두지휘 아래 장독에 담긴 메주와 간장을 꺼내며 연신 함박웃음을 지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주도하는 종로&장금이 장독분양사업 '장(醬) 가르는 날'의 풍경이다. 이날 행사는 노인주도의 전통 장(醬) 문화를 전 세대에 확산시켜 장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독분양사업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장 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7회차를 맞았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로도 성장한 종로&장금이 사업은 도심에서 어르신들로부터 전통장 담그기를 배우고 직접 장을 담가보는 행사로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 2월 장을 담그고 61일 만에 진행된 이날 장 가르기에는 장문화를 전승하는 '종로&장금이' 서울시민, 선재어린이집 원아까지 총 90여 명이 함께했다. 장 가르기에 앞서 협동조합 '마인드푸드' 이사장 혜범 스님이 1차 장담그기의 전반적인 과정과 전통 장 관리 방법, 주의할 점 등에 대해 특강했다. 혜범 스님은 "옛 어르신들은 장을 담글 때 깨끗한 물을 떠 놓고 간장과 된장이 잘 익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기도 했다"면서 "그만큼 소중한 우리의 전통을 스스로 지키며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통 계승으로 공동체 의식도
판매 수익금 복지사업에 회향
"어르신-젊은이 세대소통 의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4월 17일 종로&장금이 장독분양사업 '장(醬) 가르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잘 숙성된 메주를 건져내 손으로 치대며 된장을 만들었다. 이어 간장을 담는 독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채망과 면포를 얹어 깨끗하게 걸러 항아리에 내려 담았다. 참가자들은 "'음식은 장맛이다'라는 속담처럼, 전통장은 우리 식생활에서 뗄 수 없고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발효음식인 만큼, 장이 맛있게 익어 11월경 장독 비우기에서 잘 숙성된 장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전통장 만들기를 통해 어르신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젊은 세대가 전통장을 접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세대 간 교류의 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면서 "전통적인 음식이 계속 유지돼 계승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로&장금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진 삶의 지혜를 적극 활용, 지역사회에 전통장 전수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마을 브랜드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종로&장금이'를 통해 장을 담그고 분양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전통장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장체험관과 장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과 시민들이 직접 만든 된장과 고추장, 간장, 조청류를 판매하며 수익금은 복지사업기금으로 환원된다.

한편 종로&장금이 분양사업은 2002년도부터 외부로도 찾아가 진행하고 있다. 1호점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올해는 2호점 금천50플러스센터, 3호점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에 종로&장금이의 노하우를 가득담아 연중 전통 장 담그기 전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국대, K-명상 선도할 명상센터 문 열다

4월 18일 '동국 선(명상)센터' 개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사업 일환 설립
70여 응용명상 프로그램 운영 예정
"명상 체험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방"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4월 1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혜화관 6층 632호에서 '동국 선(명상)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조계종립 동국대에 K-명상을 이끌어 갈 명상센터가 개원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4월 1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혜화관 6층 632호에서 '동국 선(명상)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진명 스님 등 동국대 관계자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국 선(명상)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명상 공간이다. 불교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마음 치유수행법인 명상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K-명상'을 문화 콘텐츠 상품으로 개발하여 명상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국민 사업이다.

'동국 선(명상) 센터'는 54m2 규모로 조성돼 2023년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인 응용명상, 선명상 체험 등 70여개 프로그램이 6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접수는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홈페이지(www.mind.dongguk.edu)를 통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에서 "동국 선(명상)센터는 K-명상을 육성해 명상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동국 선(명상)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대중의 정신수행을 위한 중심으로 거듭나고,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연구와 체험의 산실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기념사에서 "과학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은 보다 윤택해졌지만, 정신세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음을 수련하는 명상은 인간과 문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라며 "동국 선(명상) 센터는 동국대의 노력의 결과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동국 선(명상) 센터'는 명상 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명상 전문 지도자의 현장 지도를 통해 바르고 정확한 명상 프로그램의 체험을 제공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모든 이들이 일상수행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로써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연구와 체험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제4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올해 10월 13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학술(명상컨퍼런스) △명상도서관 △교육(K-명상, K-청소년명상, 행복배달명상) △산업전문가대담 △명상체험(전통명상, 간화선, 응용명상, 명상토크, 좌선실 명상체험, 무문관수행, 걷기순례명상) △3D온라인플랫폼구축 △명상체험부스운영(팔정도) 등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인재원-대성사, '생활참선명상' 강좌 개설

한국 간화선과 명상 접목해
5월 9일부터 8주 과정 진행
화요일과 토요일 나눠 운영



불교인재원과 우면산 대성사는 서초동 대성사 유리법당에서 4월 19일 참선명상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생활 참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불교인재원이 서울 서초동 우면산에 위치한 대성사(주지 법안)에서 일반인을 위한 '제1기 생활참선명상 입문과정'을 개강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4월 19일 우면산 대성사 유리법당에서 대성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기 생활참선명상 입문과정 개강 일정을 공개했다.

화요반 5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토요반 5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8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생활 참선명상 입문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선명상은 간화선을 현시대에 맞는 명상프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으로 간화선 전통을 맛볼 수 있다.

이번 참선명상에 참가하는 이들은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을 증명법사로 하여, 불교인재원 박희승 교수가 지도한다.

입문과정은 고우 스님의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을 교재로 4주간 기초를 닦은 뒤 5주차에 충주 석종사 선림원에서 1박 2일간 석종사 금봉선원 조실 혜국 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실참하게 된다. 6주차 부터는 생활 속 참선 명상법 등 현대화된 생활참선명상법을 익히고, 마지막 8주차에서는 대성사를 세운 용성 조사의 가르침인 수행공동체에 대한 원력을 세우며 회향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화된 생활명상법을 익히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인재원이 2009년부터 지도하여 체계적인 교육 끝에 배출한 명상지도사 1기들이 대거 생활명상법을 함께 지도한다.

이론교육 등을 진행할 박희승 불교인재원 지도교수(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를 비롯하여, 정혜경 명상전문지도사(불교인재원 · 흥국사 참선명상 강사), 이윤희 명상전문지도사(샤카무니힐링요가원 운영), 석순이 명상전문지도사(불교인재원 · 흥국사 참선명상 강사), 백희인 명상전문지도사(봉은사 템플스테이 외국인 명상팀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 개최에 대해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우면산 대성사는 불교대중화의 기치를 들어올리신 용성 대조사의 원력이 서려있는 곳"이라며 "이러한 의미가 있으면서도 서울 강남의 서초동이라는 현대화된 곳에서 생활참선명상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은 "많은 사찰에서 스님들이 기도와 더불어 선수행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된 명상법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신도교육 일환으로 명상교육도 도입하여, 현대화된 사찰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 것이 용성 대조사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방안이라고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생활 참선명상 입문과정은 화요반과 토요반 각 25명 선착순 모집으로 회비는 15만원이다. 30세 이하 청년은 무료다. (02)583-1475

노덕현 기자

불교 달력 공모전 대상에 정혜윤 작가

조계종 사업부, 공모전 심사 결과 발표

제3회 불교달력 사진 · 미술 공모전 대상에 정혜윤 작가의 '관세음보살님' 일러스트가 선정됐다.

조계종 사업부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는 '제3회 불교달력 사진 · 미술 작품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전 대상에는 정혜윤 작가의 '관세음보살님', 금상에 안홍범 작가의 '수행' 사진, 은상에 김상규 작가의 '십우도' 그림과 석보원 작가의 '인도' 사진, 동상에는 순천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의 '연꽃' 그림이 선정됐다. 입선작으로는 박우현 작가의 '마애불' 사진을 비롯한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도반HC는 "이번 공모전에 사진 167명, 그림 45명 등 총 212명의 작가들이 공모전에 지원을 했다"며 "다양한 작품의 수준이 워낙 높아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고심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자 정혜윤 작가는 "33관음도에서 영감을 얻어 사계절을 담은 그림으로 작품을 구성했다"면서 "진지하고 엄숙하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불교에 친숙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표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윤 작가의 '관세음보살님'

한편,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400만원,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50만원, 입선 수상자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4월 24일 조계사 '담소'에서 열렸다.

신성민 기자

서울 성북구 흥천사, 동국대에 1000만원 기부

건학위 '지역미래불자장학' 전달
성북구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서울 성북구 흥천사(주지 각밀)가 동국대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4월 19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흥천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수여식에는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 흥천사 김춘호 사무장, 법인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지정학 법인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윤재웅 동국대 총장, 하홍열 대외협력처장, 장환영 학생처장과 흥천사 장학생들이 함께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하며, 동국대 재학생 1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했다.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이날 38회를 맞이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는 지역사찰과 해당지역 학생의 인연을 맺어주는 동국대의 가장 권위 있는 장학제도"라며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동국인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고 자랑스러운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을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며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여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여 주변에 잘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지 각밀 스님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작으나마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한솔(불교학부 4학년)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흥천사와 각밀 스님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한솔 학생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흥천사와 각밀스님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저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선순환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2월과 3월 43일 간 1167km, 불교 8대 성지를 순례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현지 영상을 장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며 순례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신성민 기자